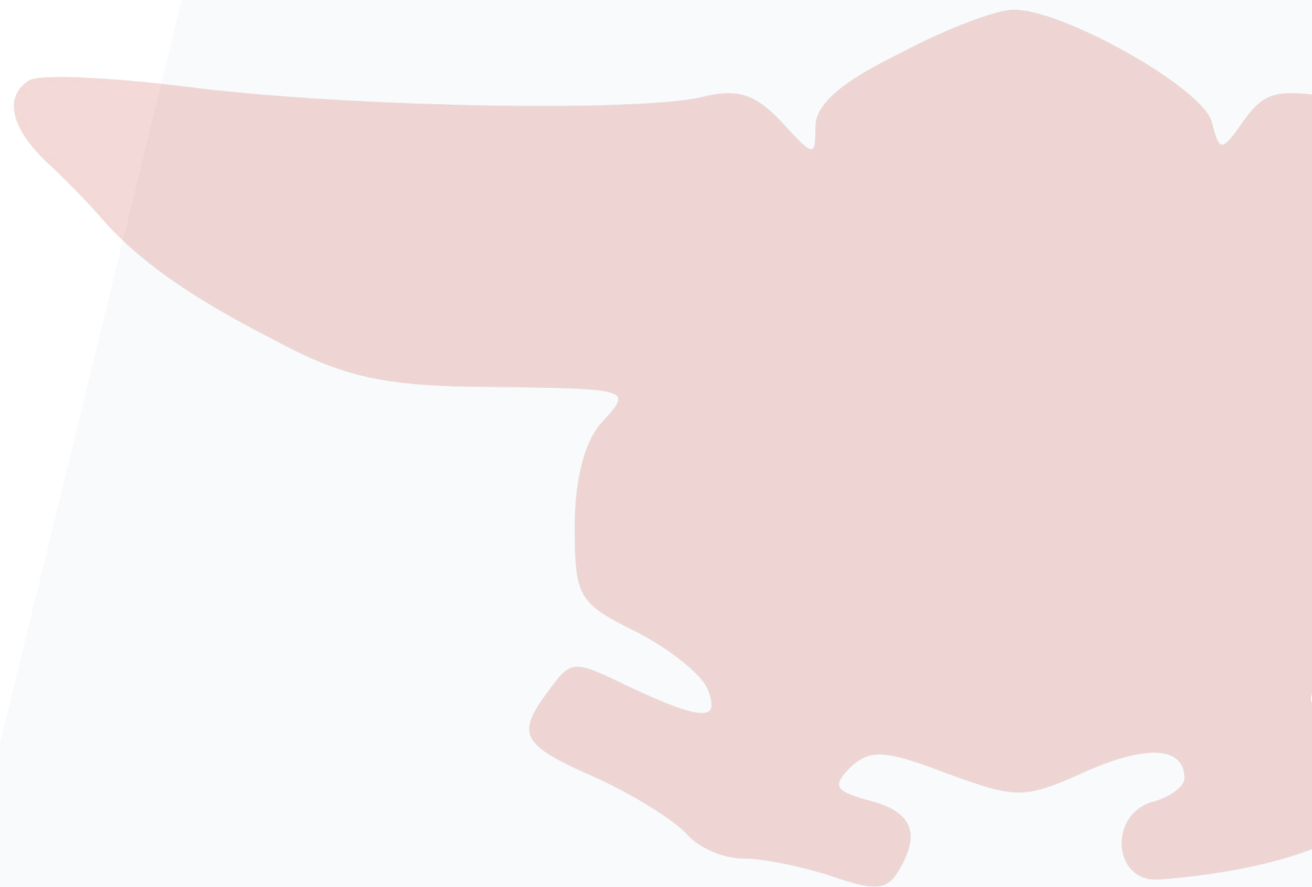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정기학술대회

재난위기 시대, 소방 조직의 과제와 전망



소방청 2026년 9월



발표 순서

재난위기 시대 소방조직 개편의 배경부터 기대효과까지 다섯 단계로 짚어봅니다

01

환경 변화

재난위기 시대, 소방 수요의 구조적 변화

02

현황 진단

지휘체계·조직 위상의 구조적 한계

03

4대 핵심과제

조직·지휘체계 개편의 4가지 실행방안

04

입법 과제

관련 법령 개정 로드맵

05

기대 효과

지휘력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

06

결론 및 제언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다음 단계

재난위기 시대, 소방 수요의 변화

인구 구조 변화와 대조적으로, 재난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01

재난의 비감소성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재난 발생 건수와 피해규모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02

구급 수요 급증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며 노인 인구 관련 구급 출동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03

재난의 대형화



기후 위기로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통제 범위와 난이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소방 수요는 인구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인구는 줄어들이지만, 소방이 감당해야 할 위험의 총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황 진단: 구조적 권한 불균형

시·도 소방본부는 재난 현장의 지휘 책임에 비해 제도적 권한이 부족합니다

ISSUE 01



지휘체계 불명확

긴급구조통제단장(본부장)의 직급이 경찰 등 지원기관장보다 낮아
현장에서의 원활한 지휘·조정이 어렵습니다.

지원기관

경찰청장 등 · 치안감/치안정감

지휘권자

소방본부장 · 소방준감/소방감

* 일부 시·도 기준

ISSUE 02



조직 위상의 한계

소방본부가 시·도의 '보조기관(부서)' 수준에 머물러
독립적 행정행위가 곤란하고 행정청 지위가 모호합니다.

지휘체계

시·도지사 → 부단체장 → 소방본부

법적 지위

단순 실·국 · 독립 행정청 지위 부재

“ 현재 소방본부는 책임에 비해 권한이 턱없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

II. 핵심 문제

핵심 문제 정의

앞선 한계들은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3가지 핵심 문제로 귀결됩니다

01



지휘권 약화

직급 불균형으로 인한 현장 장악력 저하 및
지휘 체계 혼선 초래

02



기관 간 협력 한계

조직 위상의 차이로 인한 수평적 협력 관계
구축 및 조정의 어려움

03



재난 대응 일원화 부족

중앙·지방, 본부·소방서 간 유기적 연결
부족으로 통합 대응 역량 분산

“ 높은 수준의 지휘는 요구되지만, 권한은 부족한 구조입니다 ”

4대 핵심 과제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소방 조직 정상화를 위한 4가지 과제를 추진합니다



TASK 01

인천 · 경기북부 · 제주

본부장 직급 상향

유관기관과 대등한 지휘력 확보를 위해
시·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TASK 02

지휘 단계 보강

중간직제 도입

본부장과 과장 사이 지휘 공백 해소를 위해
국장급(소방준감) 중간관리자를 신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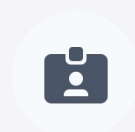


TASK 03

독립 행정청 지위

조직 위상 재정립

시·도지사 '직속기관'으로 개편하여
소방행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TASK 04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제도개선

핵심 과제 실현을 위해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유관기관과 대등한 지휘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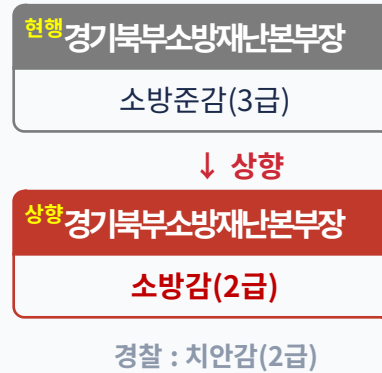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대형 재난에서 드러난 지휘 공백을 직급 조정으로 해소합니다
일부 시·도 본부장의 직급이 유관기관(지방경찰청장 등) 대비 낮아 재난 현장 지휘력이 저하됩니다.

인천소방본부



2026. 2 (완료)
대전 · 광주 직급 상향 완료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2026. 6 - 11월
시·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진행

제주소방안전본부



2026. 하반기 이후
인천 · 경기북부 · 제주 직급 상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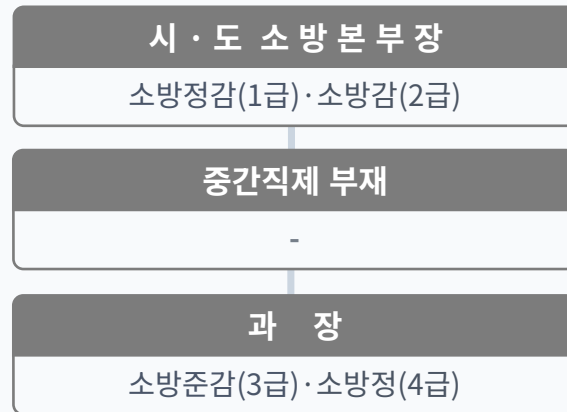
“ 재난현장의 지휘력은 대등한 권한에서 시작됩니다 ”

'본부장 - 과장' 지휘 공백 해소

1992년 광역체계 이후 업무량이 폭증했지만 중간관리자는 그대로입니다

소방공무원	4.65배	소방서	2.21배	구급 출동	30.6배	구조 출동	319.1배
-------	-------	-----	-------	-------	-------	-------	--------

소방(현행)



소방(개선)



경찰(비교)



“ 지휘는 단계가 있어야 비로소 작동합니다 ”

보조기관에서 직속기관으로

재난안전법상 지휘체계는 일원화되어 있으나, 조직상 보조기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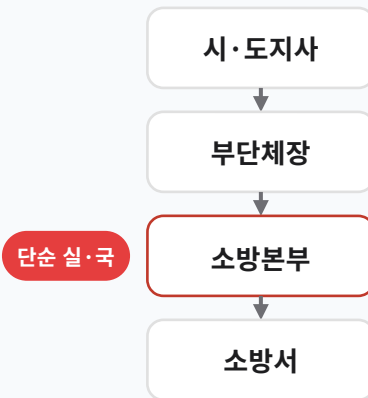
재난안전법상

지휘체계는 일원화되어 있으나,

조직상으로는

보조기관(실·국)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곤란함.



개선방안(직속기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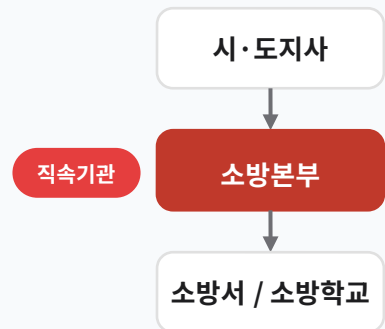
시·도지사 직속기관으로

개편하여 재난행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 위상 정립.



“ 부서에서 기관으로, 집행에서 책임으로 ”

관련 법령 개정 로드맵

핵심 과제 실현을 위해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법령 구분	주요 개정 내용	세부 내용
소방기본법	직속기관화	소방본부의 법적 위상 격상
지자체 행정기구 규정	본부장 및 국장 직급 반영	소방본부장 직급조정(인천·경기북부·제주), 중간직급(국장급) 신설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직급 조정

 **부처 협의 필수 사항** 원활한 입법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및 각 시·도와의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조직 개편은 지휘체계 정비를 넘어 국민 안전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01



재난 대응 일원화

중앙과 지방이 하나로

연결된 일사불란한

현장 대응체계 확립

02



지휘력 강화

본부장 직급 상향으로

유관기관과 대등한 협력과

실질적 지휘권 확보

03



기관 간 협력 강화

조직 위상 격상으로

지자체·타 기관과의

조정·협업 능력이 향상

“ 소방 조직의 일원화와 지휘체계 강화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

VI. 결론 및 제언

소방은 지원 조직이 아니라, 재난 대응의 핵심 지휘기관입니다

권한과 책임, 조직 구조를 일치시키는 이번 개편은 재난 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